

커피가 제일 먹고 싶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장 성 욱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방의 모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일하고 있는 한 내과 의사입니다. 지난 겨울 제 인생이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바뀌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어느덧 무더운 더위가 끝나가는 초가을,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저는 전공의로써의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치루게 되는 힘든 시험, 2차 최종 시험을 2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험 분량은 하나를 보면 앞서 본 하나가 꽉차 밀어져 나가는 느낌이었고, 지나간 준비에 지치고 책을 봐도 계속 새롭고 하나둘 놓는 중이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최근에는 루틴이 생겼는데, 계속되는 시험 스트레스에 점심시간 한시간은 점심을 후하게 먹고 소화시키는 것을 핑계로 커피 내기 탁구를 쳤었습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병원밥을 먹고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날이 춥고, 손끝이 차다못해 시립니다. 날이 한창 추울때고 히터가 나오는곳이 아니라 좀 움직이면 낫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얼마되지 않아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숨이차고 두근거립니다. 너무 무리 했나, 잠깐 의자에 앉아 쉬는데 금방 숨이 고르지 않네요. 갑자기 무리를 해서 그런가 싶어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심박수가 빠르게 두근거리어서, 마침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에서 심박수를 확인 해보니 심박수가 널뛰기치고 있고, 점점 불안해져서 10분넘게 쉬는데도 그대로, 이상하네요.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던 심전도 기능을 한번 써보자 해서 하는데도, 도대체 멈출 생각을 하지 않네요. 먼저 들어가서 설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며 식은땀이 너무 나니 한번 응급실에서 심전도라도 찍어보자합니다. 아.. 시험 코앞인데.. 괜찮을것 같은데.. 우선 들어가서 설게.. 하다가 친구들 등쌀에 밀려 응급실로 천천히 걸어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찍어보니 심박수는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이거 그냥 동빈맥인가? PSVT인가? 옆에 내과, 소아과, 마취과 전문의 준비하는 친구들과 응급실 후배들이 있는데 서로 웅성웅성거리니 괜히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누워서 좀 쉬면 멈추겠지 싶어 가서 우선 쉬어보겠다말하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고 응급실을 나와 한걸음 두걸음 걷는데, 아 이게 DOE (운동시 호흡곤란) 구나.. 숨이 안쉬어지고 쓰러질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아 미안한데 다시 응급실 가야겠다. 5분도 못걸을 것 같아. 다시 응급실에 들어가서 심전도 모니터를 달고 다른 문제없나 초음파를 하고, 아..VT.. 다행히 저는 숨쉬고 있고 혈압도 안정적입니다. 옆에 모니터와 제세동기를 갖다놓으니 땡땡 알람 울리는 소리가 세차게 몰아칩니다. 앗차.. 이게 죽음의 두려움인가, 가족들 걱정시키면 안되는데.. 아내한테 아직 연락도 못했는데, 무슨일 있으면 어떻게하지,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게 이거구나.. 별의 별 생각이 듭니다.

후배인 응급의학과 전공의 친구가 와서는 주사약제 (Verapamil) 을 맞고 한 십분지나니 차츰 두근거림이 철쭉 내려앉고, 식은땀이 짝나던게 멈추고 어질해집니다. 아 드디어 끝났구나. 시간을 보니 벌써 한시간이 훌쩍 지나가있고, 빈맥이 없어지니 숨을 쉬면 정말로 숨이 쉬어집니다. 후.. 드디어 끝났구나.

그렇게 다행히도 운 좋게 고비를 잘 넘어갔고, 교수님 진료를 받아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선 약에 효과가 있어보이니 약먹으면서 지내보고, 추후에 시술 준비를 해보자 하십니다.

매일 마시던 무수한 커피, 가끔가다가 마시던 술 못하게 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단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 일은 그대로에 잠도 그대로.. 피곤해도 커피에 의지를 못하는게 고통이구나 싶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시험일. 긴장이되고 새벽부터 춥고 피곤하지만 커피는 못마시고, 아 커피.. 신의 물방울 와인.. 아니 커피를 마시고 싶다. 커피를 못마시는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신없이 이틀동안 시험을 별일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은 다행히 별탈없이 지나고, 교수님과 다시 만나 시술날짜를 잡고, 시술때까지 한달동안 약을 끊고 지내보자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한달동안은 약을 끊고 지냈음에도 재발이 없었습니다.

시술일, 얼마전까지는 심근경색 환자들 끌고 올라가고, 인공호흡기단 환자 조영술하러 따라가고, 환자분 재우고 버전 치러왔던 그곳을 환자의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위치로 만나던 분들이 마주칠때마다 놀라십니다. 왜 여기있냐고, 저도 제 상황이 황당합니다. 시술대에 올라가 이것저것 붙이고 ... 시술이 끝났나? 지혈중이네요. 대퇴부를 꼬집는 느낌이 엄청 아픕니다. 오잉. 깨어보니 병실에 누워있고 바깥은 깜깜한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밤입니다. 제 인생 처음 진정은 이랬습니다.

계속 자다깨다를 반복하다보니 한밤중이고, 이제 시간이 되어 움직일 수 있다해서 화장실 갔다오는데, 눈앞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습니다. 약기운이 이렇게 썩거였구나. 다시 누워야 겠다. 그런데 낮에 쪽 잠만 자서 그런가 결국은 그날 밤은 잠이 절대 안오더군요.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재발 없이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하면서 이전에 생활해보던대로 지내보자 하셨던 교수님 말씀대로, 커피도 하루 반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원래대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덕에 원래만큼은 못마시게 되었네요.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어렸을때 체력이 안좋아서? 내가 천식인가? 생각했던적이 중학생때 한번, 대학생때 한번 있었는데, 당시에도 아침 추운 찬공기를 맞고 운동하면서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보면, 똑 같은 이유로 부정맥을 내가 모르고 지냈었구나, 그때 별일 없던게 정말 다행이었다 싶습니다.

이 글에 담기에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잘진단되어 치료된 저이기에 주변 친구들이 전생애 나라구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지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힘든날이었는데요. 장출혈이 심한데 찾을수 없어 네시간동안 내시경 한명을 해서 진이 빠졌었습니다. 내시경실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보니 포스터가 하나 붙어있네요. 마감일인 오늘이 되어서야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입원해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분들은 일상 생활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어지럽던, 부정맥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그곳에 없었더라면, 친구들이 응급실로 끌고가지 않아줬더라면, 어떤 나쁜일이 생겼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의 저는 군의관이 아닌 펠로우로 일하고 있고, 군인이 아닌 사회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어쩌면 훈련소에서 똑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을겁니다. 진단되기 어렵고 치료할기회가 많지 않은 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어서 적절한 제도확립과 사회적 지원이 따르면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완치의 기회를 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연구년으로 힘든 코로나 상황에 해외로 연구를 나가시게 되었는데, 건강하시고 다녀오시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